

다니엘서 - 제112번

이스마엘의 예언적 상징성 드러내기: 활 쏘는 자에서 144,000명을 인치는 자로

Jeff Pippenger
2024-03-02

하나님이 그 소년과 함께하셨고, 그는 자라 광야에서 살며 궁수가 되었다. 창세기 21:20.

이스마엘은 궁수가 되었는데, 이는 전쟁의 상징이며 로마에 대하여 집행되는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다.

바벨론 땅에서 도망하여 피한 자들의 소리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원수 갚으심, 그의 성전에 대한 원수 갚으심을 선포하도다. 바벨론을 대적하여 궁수들을 모아라. 활을 당기는 자들아, 사방에서 그것을 에워싸 진을 치라. 그 중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라. 그가 행한 모든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는 그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대적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예레미야 50:28, 29.

활 쏘는 자들이 바벨론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며, 그 보응은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 때,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과 함께 시작되는데, 그때 바벨론에 대한 점진적 집행 심판이 시작된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을 받지 않게 하라. 이는 그의 죄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를 기억하셨음이라. 그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갚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갑절로 갚아 주며, 그가 채운 그 잔에도 그에게 갑절로 채워 주라. 그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는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았고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라. 요한계시록 18:4-7.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은 장자권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제지되었고, 추방되었다. 그리하여 질투는 이슬람의 예언적 동기가 되었고, 전쟁은 그들의 예언적 사명이 되었다. 첫 언급에는 사라가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에게 가한 제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의 '제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전반에 걸쳐 이슬람의 주요한 예언적 특징이 되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을 대적하여 손을 드는 거친 자들이 될 것이었고, 그들의 거친 속성은 말과에 속한 아라비아 들나귀로 상징된다. 그러므로 첫째와 둘째 화의 이슬람 전쟁은 성난 말들을 탄 전사들로 묘사된다.

이슬람은 늦은 비의 기별이며, 늦은 비의 방법론이 '줄 위에 줄'이므로 세 가지 화가 세 가지 특정한 예언의 선을 나타내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 첫 두 선의 예언적 특징들이 함께 결합될 때 그것들은 셋째 화의 선을 확립한다. 세 예언의 선 모두가 십사만 사천의 인침 기간을 보여 준다. 그 세 선은 늦은 비가 부어지는 기간을 나타내는데, 이는 2001년 9월 11일 셋째 화가 도래했을 때 늦은 비가 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늦은 비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내리게 될 것이다. 능력 있는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며,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91년 4월 21일.

인침의 기간은 또한 1840년 8월 11일에 시작하여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의 도착으로 끝난 기간으로도 상징되었다. 그 기간은 하박국 2장에도 나타나 있다. 밀러 운동의 역사는 하박국 2장을 성취했고, 그리하여 1840년 8월 11일 천사가 내려왔을 때 시작되어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가 도착했을 때 끝났다.

하박국 2장은 환상의 끝에 이르면 그 환상이 "말할 것"이라고 밝힌다.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서 그 천사는 큰 음성으로 외쳤고(말했으며), 1844년 10월 22일에는 같은 천사가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다(말했다). 하박국 2장 1절의 파수꾼은 1840년 8월 11일에 해당하는데, 그때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이다.

1888년의 반란은, 화잇 자매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비추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를 대표한다고 지목한 사건이었으며, 그때 파수꾼들(존스와 왜거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보여 주기 위해 나팔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으니, 그들의 메시지는 라오디게아를 향한 메시지였다. 1888년의 역사로 예표된 2001년 9월 11일에, 주께서 말세의 백성을 예레미야의 옛 길로 다시 이끄셨으나, 그곳에서 파수꾼들의 말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았다. 그 천사의 강림은 파수꾼들의 예언적 등장을 표징한다.

1840년 8월 11일에 도착한 "음성"은 파수꾼들을 통해 전달되었고, 예레미야는 실망을 겪은 뒤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지체되던 목사가 1844년 10월 22일에 마침내 이르렀을 때, 그것은 "말했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성취된 하박국 2장의 시기는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시기를 예시한다.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기간이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보여 주며, 그 기간은 늦은 비가 부어지는 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늦은 비 기별은 '줄 위에 줄' 방법론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십사만 사천의 인침이라는 이 특별한 기간은 예언적 선들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며, 하박국 2장에서도 그렇다. 화이트 여사는 이것이 밀러주의자들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지적한다. 그녀는 또한 밀러주의자들의 역사가 십사만 사천의 역사 속에서 반복된다고 거듭 가르친다.

그들이 재림의 때에 해당한다고 여겨 온 예언들과 함께 엮여 있었던 것은, 그들의 불확실과 초조함의 상태에 특별히 맞추어진 교훈이었으며, 지금은 그들의 이해에 어두운 것이 때가 되면 분명해질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예언들 가운데에는 하박국 2:1-4의 예언이 있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대 위에 나를 세우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와 내가 책망을 받을 때 무엇으로 대답할지를 보기 위하여 지켜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환상을 기록하여 판에 분명히 새겨, 읽는 자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라. 이 환상은 아직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끝에는 성취되어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이를 것이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스스로 높아진 자의 영혼은 그 속에서 정직하지 아니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1842년에, 이 예언에서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분명히 새겨서 달려가는 자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지시는 찰스 피치로 하여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도해하는 예언 도표를 준비하게 했다. 이 도표의 출판은 하박국에게 주어진 명령이 성취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때에는 같은 예언 속에 환상의 성취에 걸보기의 지연—곧 지체의 때—이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실망 이후에야 이 성경 구절이 매우 의미 있게 보였다: '이 묵시는 아직 정한 때가 있나니 끝에는 말하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이를 것이니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에스겔의 예언의 한 부분 또한 믿는 자들에게 힘과 위로의 근원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날들이 길어지고 모든 환상이 실패한다' 하고 말하는 그 속담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 날들이 가까이 왔고, 모든 환상의 성취도 가까이 왔다. ... 내가 말하리니, 내가 말할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며 더 이상 지연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을 위한 것이요, 그는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한다 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 말들 가운데 어느 것도 더 이상 지연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에스겔 12:21-25, 27, 28. 위대한 논쟁, 391-393.

밀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열 처녀의 비유와 하박국 2장을 성취하고 있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예언들을 성취하고 있던 역사가 바로 에스겔이 그 동일한 역사라고 지목하며 '모든 환상의 응함'이 이루어질 것이라 한 그 역사임도 보게 되었다.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나타내는 역사적 흐름이야말로 모든 환상의 응함이 성취되는 곳이다!

늦은비의 기간과 십사만 사천 명의 인침을 나타내는 선들이, 예언적 역사가 언제나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을 지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함께 모아진다.

밀러주의 운동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의 음성으로 시작하여 같은 음성으로 끝난다. 2001년 9월 11일은 요한계시록 18장의 첫째 음성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으로 끝난다. 하박국 2장은 파수꾼들의 음성으로 시작하여 예레미야의 파수꾼의 음성으로 끝난다. 첫째 화는 무함마드로 시작하여 무함마드 2세로 끝난다. 둘째 화는 이슬람의 네 천사가 풀려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슬람의 역제로 끝난다.

늦은 비의 방법론은 이사야의 '줄에 줄을 더하는' 방법론이며, 늦은 비의 기별을 식별하고 확립하기 위해 한데 모아지는 그 줄들은 예외 없이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을 담고 있다. 요한계시록 9장의 첫째 화는 무함마드로 시작하여 무함마드 2세로 끝난다. 그 기간은 두 가지 유형의 전쟁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아부바카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로마에 대한 무질서한 공격이며, 그다음은 이슬람의 최초의 조직적인 전쟁이 이루어진 150년의 기간이다.

150년은 "다섯 달"이라는 시간 예언으로 상징된다. 둘째 화에도 391년 15일이라는 시간 예언이 있다. 그러므로 첫째 화와 둘째 화의 예언적 구조가 시작과 끝을 서로 연결짓기 때문에, 그것은 인침과 특정 기간 사이의 구분을 포함한다. 인침 과정은 첫째 화의 역사

시작에서 나타나며, 둘째 화의 끝에서 나타난다.

첫째 화에서 4절의 인침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다섯 달"(150년)이다. "다섯 달"은 두 번 언급되는데, 한 번은 5절에, 또 한 번은 10절에 있다. 둘째 화에서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인침 과정에 앞서는 것은 15절의 "한 시간, 하루, 한 달, 일 년"(391년 15일)의 예언이다. 연속적인 하나의 흐름 속에서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은 인침 과정을 보여주는 묘사로 시작해 그 묘사로 끝난다.

두 개의 선을 "줄 위에 줄"로 적용하면, 무함마드 1세와 무함마드 2세로 표시되는 시작과 끝을 식별하게 된다. "줄 위에 줄"로, 각 선이 시간 예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선마다 서로 구별되는 두 기간을 식별한다. 첫째 화의 역사에서 이슬람은 로마를 '상하게' 하도록 되어 있었고, 둘째 화에서는 로마를 '죽이도록' 되어 있었다. 첫째 화는 창과 칼과 화살의 전쟁이었고, 둘째 화에서는 무기로서 화약이 도입되었다.

10절. 그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를 가졌고, 그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었으며, 그들의 권세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었다. 11절. 그들 위에 왕이 있었으니, 그는 무저갱의 천사라,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의 이름이 아폴리온이라.

지금까지 키스는 첫 다섯 나팔의 울림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의 논의를 떠나, 여기에서 도입된 예언의 새로운 특징, 즉 예언적 기간의 적용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들의 권세는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해하는 것이었다. 1.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 그들이 다섯 달 동안 해하려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이 그 후에 죽일 자들과 같다(15절 참조). '사람들의 삼분의 일', 곧 로마 제국의 3분의 1, 즉 그리스 부분이다.

2. 그들은 언제 괴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 있었는가? 11절이 그 질문에 답한다.

(1) '그들 위에 왕이 있었다.' 무함마드가 사망한 때부터 13세기 말 무렵까지, 이슬람교도들은 여러 지도자 아래에서 여러 파벌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들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된 세속 정부는 없었다. 13세기 말에 이르러 오스만이 정부를 세웠는데, 이는 이후 오스만 정부, 즉 오스만 제국으로 알려졌으며, 성장하여 주요 이슬람교 부족 모두로 그 지배를 확장하면서 그들을 하나의 거대한 군주국으로 통합하였다.

(2) 그 왕의 성격. '곧 무저갱의 천사다.' 천사는 전령, 사역자를 의미하며,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고, 반드시 영적 존재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무저갱의 천사'란, 그것이 열릴 때 그곳에서 나온 종교의 수석 사역자를 말한다. 그 종교는 마호메트교이며, 그 수석 사역자는 술탄이다. '술탄, 혹은 구별 없이 그렇게도 불리는 대 세노르는, 또한 최고 칼리프, 곧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한 사람에게 최고의 영적 존엄과 최고의 세속 권위를 결합하고 있다.'-World As It Is, p.361.

(3) 그의 이름. 히브리어로는 'Abaddon', 곧 파괴자; 그리스어로는 'Apollyon', 곧 멸절시키거나 파괴하는 자. 두 언어에서 서로 다른 두 이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력의 이름이라기보다 그 성격을 나타내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두 언어 모두에서 표현된 대로, 그는 파괴자다. 그런 성격은 오스만 정부의 언제나 변함없는

특징이었다.

그러나 오스만이 그리스 제국에 처음으로 공격을 감행한 때는 언제였는가? - 기번의 『Decline and Fall』 등에 따르면, '오스만은 1299년 7월 27일에 처음으로 니코메디아 영토에 들어갔다.'

일부 저자들의 계산은 그 기간이 오스만 제국의 건국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오류이다. 그들은 자신들 위에 왕을 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괴롭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고통의 기간은 괴롭히는 자들의 첫 공격 이전에는 시작될 수 없었고,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299년 7월 27일이었다.

이 출발점을 바탕으로 한 다음의 계산은 1838년에 J. Litch가 '그리스도의 재림 등'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저서에 수록되어 발표되었다.

"그들의 권세는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해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위임은 거기까지 미쳤으니, 끊임없는 약탈로 괴롭히되 정치적으로 그들을 죽이는 데까지는 아니었다. '다섯 달'은 한 달을 삼십 일로 계산하면 백오십 일이 되며, 이 날들은 상징적이므로 백오십 년을 뜻한다. 1299년 7월 27일부터 시작하여 그 150년은 1449년에 이른다. 그 전 기간 동안 터키인들은 그리스 제국과 거의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으나, 아직 그것을 정복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의 여러 주를 점령하여 장악했지만,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여전히 그리스의 독립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1449년, 곧 그 150년의 종료 시점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나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505-507.

유라이어 스미스는 150년에 대한 조사리아 리치의 계산을 인용하고 있으며, 그 150년이 끝나면 그것이 다음 나팔에서의 391년 15일 예언의 기점이 된다고 한다. 이 서로 연결된 두 시간 예언에 관한 리치의 예측을 논평하며, 화이트 자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840년에 이르러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예언 성취가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보다 2년 전에, 재림을 전파하던 주요 목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조사리아 리치가 요한계시록 9장에 대한 해설을 출판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몰락을 예언하였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이 세력은 ... 1840년 8월 11일에 전복될 것이었는데, 그때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스만의 권세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

"정확히 지정된 그대에, 터키는 그 사절들을 통하여 유럽의 동맹 열강의 보호를 받아들였고, 이로써 스스로를 그리스도교 국가들의 통제 아래 두었다. 그 사건은 그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무수한 사람들이 밀려와 그의 동료들이 채택한 예언 해석의 원칙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재림 운동에는 놀라운 추진력이 부여되었다. 학식과 지위를 갖춘 사람들이 밀려와 연합하여 그의 견해를 설교하고 출판하였으며, 1840년부터 1844년까지 그 사업은 급속히 확장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34, 335.

첫째 화와 둘째 화는 서로 맞물린 두 기간 예언으로 이어져 있다. 첫째 화는 인침을 보여 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둘째 화는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의 역사로 끝나는데, 이것 또한 인침의 예증이다. 그 시작과 끝에는

알파와 오메가의 표지가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증하신 역사와 같이 그 기간이 둘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기간은 첫 번째 모하메드로 시작하여 두 번째 모하메드로 끝난다. 둘째 기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나는 음성"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끝나는데,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 계시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두고 맹세하여, 더 이상 때가 없으리라"고 하신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온 위대한 여정의 역사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하려고 사탄이 마음속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질문도 그 사탄의 폐하를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 주님의 권능과 큰 영광으로 속히 이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은 진리이며, 1840년에 그것을 선포하는 많은 음성이 일어났다. Manuscript Releases, 제9권, 134쪽.